

활력이 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www.fipa.or.kr

## 한국어항협회 제15기 정기총회 성료

# 어항어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 아름다운 해안 활력있는 어항어촌 건설

## ‘창조적인 협회, 역동적인 협회, 생산적인 협회’ 추구

한국어항협회는 2월 20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제15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20여명의 내외귀빈과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사업 및 결산 승인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제1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을 시상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어항어촌의 종합적 발전 촉진 △어항기술개발과 조사연구 및 홍보 강화 △어항 환경정화사업의 중점 추진 △어항인의 총의 결집 및 충실한 대변 △조직경영과 가치혁신의 과감한 실현 등 올해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은 박덕배 수산정책국장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꿈과 희망이 바다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삼남 장관은 어항어촌개발과 관련하여 “앞으로 직접·양적지원에서 간접·질적지원 체제로의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어항·어촌 기반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하여 “금년에도 2,0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하고 생산적인 어촌정주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생명력 넘치는 깨끗한 해양환경의 조성과 안전한 바다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어촌체험관광 마을조성·해중관광지구 지정 및 관광항로의 개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이어앞서 인사말을 통해 21세기에 들어서는 해양환경의 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 양질의 어류단백질 공급원인 수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레저 관광



휴양지로서의 어항개발 수요 또한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제 우리는 어항어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단순한 어선정박 개념으로서의 어항이 아니라 어장과 어촌의 결합지로서, 어촌개발의 핵으로서 어항을 개발해야 하고, 수산물의 유통 가공, 어촌정주환경 조성, 해양레저와 관광, 도시민의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종합적 다기능 어항으로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우리의 꿈과 희망인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아름다운 해안공간의 창조,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 건설을 기필코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어항인이 중심이 되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하여 매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손정식 회장은 또 협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협회 스스로도 “조직경영과 가치혁신을 과감하게 실현함으로써 협회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역설하고 이를 위해 “현실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과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대격동기에서도 한점 흔들림 없이 우뚝 설 수 있는 ‘창조적인 협회, 역동적인 협회, 생산적인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손정식 회장은



한국어항협회는 2월 20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제15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20여명의 내외귀빈과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사업 및 결산 승인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제1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 시상(가운데 사진) 및 감사패를 수여(아래 사진)했다.

협회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험난하다며 “우리 협회는 올해를 15년 한국어항협회 역사의 완결편을

만드는 중차대한 해로 간주하고 재도약을 다짐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마치 갈기를 휘날리며 앞만



손정식 회장 인사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한국어항협회 제15기 정기총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이 접철된 지난 한해는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9.11 테러사건과 아프카니스탄 전쟁은 세계평화와 국제경제를 크게 위협하였고, 역사 왜곡 교과서에서부터 시작된 일본과의 갈등, 그리고 대형 게이트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어항업계에서는 수주물량의 격감과 과당경쟁, 특히 어항공사의 총괄발주 전환 등의 크나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어항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견뎌 나오고 있는 우리 어항인의 저력은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전국 어항개발 투자효과 분석 및 개발방안에 대한 정부적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어항개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서해특정해역을 비롯하여 격포항 연도항 심이동과도, 동해의 침체어망인양과 대진항 아야진항 남해항 장호항에서 해양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간의 국제교류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해외어항어촌조사단 파견, 수산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과 도서벽지 학교와의 자매결연사업 그리고 문화어촌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사업 등 크고 작은 내실있는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어항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성원과 관계 당국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면에 계속>



■총회 특별행사로 미스코리아 출신 한의사 김소형 원장을 초청, 건강보감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보고 내달리는 말과 같이, 준마의 기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어항어촌 발전 및 협회발전 공이 큰 어항인에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 시상 및 감사패 수여와, 특별행사로 미스코리아 출신 한의사 김소형 사랑의 한의원 원장을 초청, 건강보감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 수상자 △성보건설산업주식회사 박성태 사장  
감사패 수여자 △대능건설주식회사 박후근 회장 △부흥건설주식회사 이상실 사장 △주식회사새건설 조경환 상무이사 △김앤고살베지주식회사 김수일 회장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한상복 원장

### 제 15기 정기총회 해양수산부장관 치사

오늘 뜻깊은 한국어항협회 정기총회를 맞아 그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손정식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과 어항인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의 꿈과 희망이 바다를 통해 실현되는 21세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기회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21세기는 희망의 세기이자 해양의 세기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 각국이 이미 해양화를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바다 개척을 통해 21세기 세계경영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비롯하여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아시안게임 등 국내외로 대규모 행사가 줄지어 있어 이를 통해 우리 해양수산 분야 역시 국운융성의 시험대 내지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꿈과 희망이 바다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첫째, 어항·어촌개발과 관련하여 앞으로 직접·양적지원에서 간접·질적지원 체제로의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어항·어촌 기반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도 2,0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하고 생산적인 어촌정주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가 동북아의 물류센터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신항 및 광양항 등 7개 신항만과 6개 권역별 항만투자사업 등에 지난해보다 28%가 늘어난 1조 3,059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신항 남항 컨테이너부두 등 일부 신항만의 경우 민자부두건설과 함께 재정을

병행투자하여 항만건설이 적기에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로, 생명력 넘치는 깨끗한 해양환경의 조성과 안전한 바다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무분별한 연안개발에 대응하여 연안침식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바다골재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40개소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할 것입니다.

넷째로, 국민들의 해양사랑 고취를 위한 어촌체험관광 마을조성·해경경관지구 지정 및 관광항로의 개설을 추진하며, 장보고 정신의 범국민적 확산유도를 위한 유적지 조사·기념물 제작 등 각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꿈과 희망은 이를 추구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아울러 노력 없이는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인식과 과학적인 분석에 입각한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단합된 힘을 통한 연구 노력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산업이 쇠퇴일로로 걷게 된 그 배경에는 단일한 현실대처와 주먹구구식 적당주의 어업경영이 한몫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회는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기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번 바다를 통한 세계경영에 어항인 모두 동참하시어 큰 성과를 일궈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피와 땀과 눈물을 모아 노력해 봅시다. 어항인 여러분은 해양 세계경영의 첨병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어항인 여러분의 행운과 어항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면에서 계속>

어항인 여러분!

임오년은 역사적으로 다사다난했다고 합니다. 2002년도 역시 여러가지 의미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양대 선거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신중한 결정을 해야하는 중차대한 해입니다. 한편 중국의 WTO가입 등으로 우리 경제계 전반에 어려움이 전망되고 있으며, 뉴라운드로 인한 어업경영의 여건 악화를 비롯하여 대내외적으로 수산업계에 많은 시련을 예고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해양환경의 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 양질의 어류단백질 공급원인 수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레저 관광 휴양지로서의 어항개발 수요 또한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항어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단순한 어선정박 개념으로서의 어항이 아니라 어장과 어촌의 결절지로서, 어촌개발의 핵으로서 어항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유통가공, 어촌정주환경 조성, 해양레저와 관광, 도시민의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종합적 다기능 어항으로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꿈과 희망인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아름다운 해안공간의 창조, 활력 있고 쾌적한 어항어촌 건설을 기필코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어항인이 중심이 되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하여 매진해 나가시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우리 협회는 우선 어항분야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부분도 있으나 어항분야는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자체연구사업과 병행하여 외국과 기술교류의 다변화를 통해 자연조화

형 어항건설 등에 대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어항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항환경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바다는 오폐수 유입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황폐화되어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중질적폐기물정화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근해침체어망인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근년들어 어항인의 목소리가 작아져서 애로사항 반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이를 대변하고 현안을 타개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협회 스스로도 조직경영과 가치혁신을 과감하게 실현함으로써 협회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협회의 기본방향 아래 현실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과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대격동기에서도 한점 흔들림 없이 우뚝 설 수 있는 '창조적인 협회, 역동적인 협회, 생산적인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그 동안 피땀어린 노력으로 협회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상궤도에 진입하기에는 아직도 앞날이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올해를 15년 한국어항협회 역사의 완결점을 만드는 중차대한 해로 간주하고 재도약을 다짐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마치 갈기를 휘날리며 앞만보고 내달리는 말과 같이, 준마의 기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작정입니다. 어항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타와 뜨거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항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어항만족 모형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손정식 회장 박사학위 취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2월26일 『어항만족 모형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광운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프레스턴대학에서도 학위를 취득한 바 있는 손 회장은 이번 학기부터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학위 논문은 국내의 선형연구가 전 해 없었고 학문적 불모지인 어항분야를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승화시켰으며, 특히 이 분야 연구의 길을 더 넓음으로써 후속 연구 과제를 암시하고 있어 향후 어항어촌 연구의 발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 전국 시·도 수산관계관 회의 주재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1일 어업질서확립 시·도별 평가회의를 주재, 5일에는 전국해양수산관련 교수 초청 간담회를 주재, 6일에는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 김행만 신임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설 수산물 거래실태를 점검하고 사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 15일에는 재외공관장 간담회에 참석, 21일에는 전국 시·도 수산관계관 회의를 주재, 22일에는 '한국경제,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수요해양강좌를 실시, 25일에는 국민의 정부 출범4주년 기념만찬에 참석, 27일에는 어업인 신지식공유시스템 시연회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2월14일 특별회비로 1천만원을 쾌척, 21일에는 상명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회에 참석, 25일에는 밝은사회 서울중앙클럽 월례회의에 참석.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은 2월2일 전국 99개 점포장들이 모인 가운데 'Jump 2&2운동'을 선포하고 올해 사업규모를 작년보다 한단계 점프, 기반확대와 수익성을 배가하기로 했다.

▲고체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2월9일 송원화원산하 각급학교 졸업식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2월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회에 참석, 8일에는 전경련 이사회에 참석, 21일에는 한국농림협회 창립기념 조찬회에 참석, 2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26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 28일에는 한·일 협력위원회 오찬강연회에 참석.

▲최상욱 남파토건주식회사 회장은 2월2일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원 정기총회에 참석, 15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 정세설명회 및 정례회의에 참석, 20일에는 용봉경영포럼 월례조찬연수회에 참석, 21일에는 광주국악진흥회 정기총회에 참석, 22일에는 광주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25일에는 전남4H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5일 동광회관 신사옥 준공식을 거행, 8일에는 고달산동간 도로공사현장을 출장, 15일에는 안산고잔 아파트공사현장을 방문, 25일에는 광주은행생존동지점 개점

식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7일 대한건설협회 비상임감사 선임 전향위원회에 참석, 19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이사회에 참석, 2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에 참석, 26일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당선.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2월4일 진도 도로공사 현장에 출장, 19일에는 하동정씨 장학회 이사회에 참석, 23일에는 순창 조정농장에 출장.

### 인 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인사  
△감사관 서상범 △어업자원국장 김영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양병관 △해양수산부 김성규 이용수  
□과장급 인사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장 조강현 △어업교섭지도과장 정영훈 △세종연구소 과장 황수철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과장 박경철 △한국해양연구원 과장 채진규 △전라남도 과장 장철호

□계장급 인사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강영철 이병주 △안전관리관실 안전정책담당관실 김규섭 이용 이기상 △해사기술담당관실 박성규 △해양방재담당관실 신만철 김동천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담당관실 김종실 △총무과 부원찬 차태환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철성 서재연 윤정석 강인남 △행정관리담당관실 신연철 김부실 △비상계획관실 오신기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 김해정 윤종호 △해양정책과(APEC 해양장관회의 준비사무국 지원근무) 전재우 △해양개발과 노진학 △해양환경과 민해영 서정호 △해양보전과 김대수 △연안계획과 최익현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송상근 김윤호 △선원노동과 정진관 박관돌 △물류기획과 이준용 이재봉 △항만국 항만정책과 김우철 최명용 △항만건설과 홍승호 △항만개발과 김규진 이철조 △민자계획과 이규용 △기술안전과 양명석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최익영 홍종욱 이희영 최완현 △유통가공과 손건수 박노종 이찬복 △어촌어항과 정창원 한원석 △어업기술인력과 최철진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심재현 정동기 △어업교

섭지도과 김상규 이상구 정상윤 △양식개발과 박신철 △자원관리과 김동욱 △국립수산진흥원 강인구 이영소 박선준 김남중 이갑돌 이병웅 △국립해양조사원 조창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이경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 김용태 △황주요 조인식 이정수 류성희 이형락 고상우 김자영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김완규 강후성 정진관 최재학 이진오 박창연 권현욱 허영삼 곽훈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장 이시찬 △이희범 신석순 장상복 김봉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김종숙 △신승균 임익장 박상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함안공사과장 조치현 △송현우 이규섭 조용중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어명수 △선원선박과장 김교천 △김창환 정수철 박권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함무과장 서진석 △해양환경과장 김성갑 △함안공사과장 김종렬 △장항출장소장 장홍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김세곤 △함안공사과장 송주민 △어항공사과장 조영원 △류종빈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함무과장 최경욱 △함안공사과장 손형모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장 박길곤 △임상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찬정 이천희 류시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하대식 김준곤 △해양수산부 서기관 정영모 사무관 공두표 조자환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지원근무 사무관 오윤열 △주 일본국대사관 1등서기관 서기관 추교필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 영사 사무관 박환준 △해양수산부 서기관 김승호 사무관 송민수

### 외 비 남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  
▲김진열씨(전 수산청 과장)  
▲손영수씨(전 선박검사기술협회 검사이사)  
▲이신복씨(대한어망공업협회 전무이사)  
■특별회비  
▲이준양씨(전 해양수산부 과장)

### 부 음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14일 상배를 탔다. 장지는 대한불교 조계종 능인선원.

# 계획된 시설 완료해도 어항시설 부족 새로운 수요증가 지속적인 개발 요구

##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분석 및 개발방안’ 보고서 제출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정부 용역사업인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분석 및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를 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어항협회는 국내외적인 수산업 여건변화에 따라 과거 30여년간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어항개발사업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제시하는 한편, 99년 행정자치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육지소규모어항의 새로운 개발정책 및 방안 제시를 위해 지난 2000년 1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용역을 수입,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이 보고서

에서 새로운 어항수요는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고, 현재까지의 어항시설 뿐만 아니라 장래 계획된 시설까지 모두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어항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지속적인 어항개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2000년말 현재까지의 어항시설을 분석한 결과 이용어선의 계류시설 충족률이 61%로 약 62,556m가 부족하며, 항내 수면적을 고려한 어선의 안전수용률은 약 49%로서 어항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어선의 계류 및 안전수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32%인 계획 시설 완료율을 높이기 위한

집중투자가 시급한 과제이며, 동해안에 비해 계획 완료율과 계류시설 충족률, 어선의 안전수용률이 낮은 서·남해안 지역의 어항에 우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20톤 미만 소형어선을 위한 접안시설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시설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 구성은 크게 제1편 서론, 제2편 국내외 수산업 여건변화와 전망, 제3편 지정어항 개발방향, 제4편 육지소규모어항 개발방향, 제5편 요약 및 결론으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내외적인 수산업 여건변화가 어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

하여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어항 및 항만개발실태 분석 및 평가와 지금까지의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분석, 적정어항개발 수요 예측, 문제점 및 개선대책, 효율적인 어항개발방안과 함께 육지소규모어항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잠재력, 지역주민의 개발의식 및 개발수요 파악, 육지소규모어항의 유형화,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육지소규모어항의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전국어항개발 투자효과분석 및 개발방안’ 연구는 범위가 넓고 방대하여 한국어항협회를 주축으로 중앙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농어촌연구원, (주)해인이엔씨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는 각 시·도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 해양수産部 次官에 柳正錫씨 취임



장, 심사평가조정관 등을 지냈다.

특히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을 맡아 정부의 물관리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연안관리법 제정,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 수립 등 해양수산부의 주요 현안을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유 차관은 호방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 고흥(58) △서울대 법대 △관세청 공보담당관 △국무총리실 사회복지심의관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심사평가조정관 △총괄조정관

지난 5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유정석 전 국무총리실 총괄조정관이 취임했다.

신임 유정석 차관은 20여년간 총리실에서 근무해온 총리실 터줏대감으로 73년 행정고시 13회로 출발, 관세청을 거쳐 총리실에서 자치행정심의관, 사회복지심의관, 수질개선기획단 부단

와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시·도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년도에는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비한 협상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연근해어업의 전면적 구조조정 추진 및 자율관리형 어업정책과 불법어업 근절에 역점을 두고 수산시책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히고, 중앙의 정책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 어업인, 소비자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수산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어업관련 어종별, 업무구별별, 시·도 해양경계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구시대적 사고를 과감히 탈피하여 시·도간 미래지향적·발전적인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수산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을 당부했다.

##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에 40억원 투입 창조적 여가활동 위한 새로운 모델개발

올해 8개 어촌계에 국비 20억원, 지방비 18억원, 자부담 2억원 등 총 40억원이 투입, 어촌체험관광마을이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시인들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개소당 5억원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실질적인 어업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

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문객이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 전국 수산관계관회의 개최

유삼남 장관, 구시대 사고 탈피 원활한 수산행정 주문

2001년도 수산시책추진 평가결과 전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도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전국 시·도 수산관계관 회의를 개최, 2001년도 수산시책추진 우수도로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를 선정, 시상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조

이와함께 도시인들의 창조적인 여가활동,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체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어촌관광 모델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 수산물 원산지표시 추진, 불법어업 단속, 적조방제 사업 수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최우수도에 선정,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산시책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시·도로 선정

## 어항청소선 소식

3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 명	월 일	지 역 (항)	선 장	연 락 처	
어항 901호	3. 11 - 16 3. 25 - 30	군산 위도	최동립	(휴대폰) 011-247-5592 E-mail : 901@fipa.or.kr	
어항 902호	3. 4 - 23	수리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E-mail : 902@fipa.or.kr	
어항 903호	3. 4 - 9 3. 25 - 30	녹동 명천, 시산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E-mail : 903@fipa.or.kr	
어항 904호	3. 5 - 16 3. 22 - 31	황간도 황간도	박주중	(휴대폰) 011-232-5596 E-mail : 904@fipa.or.kr	
어항 905호	3. 4 - 23 3. 25 - 30	수리 능포, 외포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E-mail : 905@fipa.or.kr	
어항 906호	3. 18 - 29	죽변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E-mail : 906@fipa.or.kr	
어항 907호	3. 4 - 23 3. 25 - 30	수리 주문진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E-mail : 907@fip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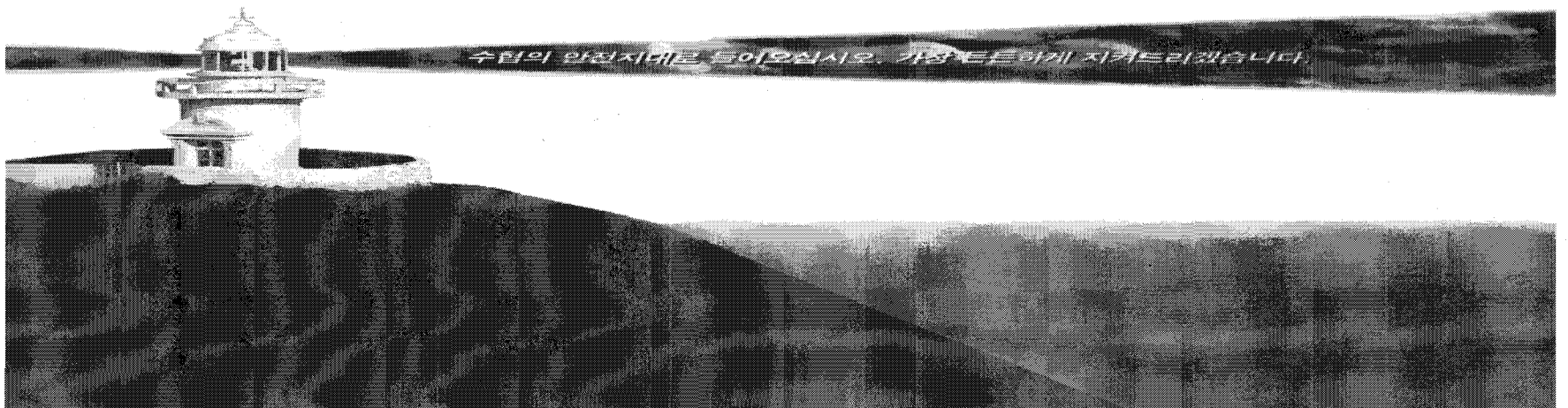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바다 바다 바다 오염된 후 후회 말고 청정수역 보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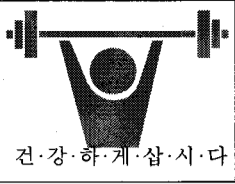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 수협조합  
**수협공제**

#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의 안전지대로 들어오십시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 당뇨의 올바른 관리

비만 관리가 만성병 관리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뇨병 그 자체가 유전되기 보다 당뇨병이 걸리기 쉬운 소질이 유전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뚱뚱해지기 쉬운 유전적 요인을 갖고 태어났지만 적절한 운동을 통해 살이 찌지 않으면 비만하지 않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당뇨병을 유발하는 인자로 보는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잦은 임신, 약물남용 등을 피하고 적절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면 그 소인은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 비만 조절

비만은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에너지를 초과할 때 생긴다. 살이 찌면(지방량이 많아지면) 인체는 같은 정도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데 체장이 혈당에 맞추어 계속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다면 당뇨병은 발생되지 않지만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 상대적인 인슐린의 결핍이 발생한다.

◇ 식사 : 반복식의 80%까지 식사량은 반복식의 80%에서 중지한다. 아울러 단 음식을 극소로 줄이고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콩류)을 거의 반

반씩 섭취하고, 지방질도 동물성과 식물성을 적절히 사용하고, 또한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포함된 유색야채, 버섯류 해초 등을 섭취하여 균형 있는 식생활이 되도록 한다.

◇ 운동 : 매일 30분씩 속보로 걷기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고, 인슐린 효과를 좋게 하고,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압을 내려 혈당조절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증 발생을 예방해 당뇨병 합병증을 억제한다. 가장 권장되는 것은 매일 30분 정도 속보로 걷는 것이며, 만보 이상 걷는 것이 권장된다.

#### ◇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유전적으로 당뇨병의 소질을 가진 사람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축적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당뇨병으로 발병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어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 ◇ 술 피하기

술은 당뇨병에 안 좋다. 술은 당뇨병 관리를 어렵게 하고 고혈당을 가져와서 당뇨병 합병증(혈관,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발, 지질대사 이상 등)을 초래하고 악화시킨다. 결국 당뇨병은 술에 의해 촉진되고 악화되는 것이다.

# 어·항·교·실

##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63)

### 第4章 地盤改良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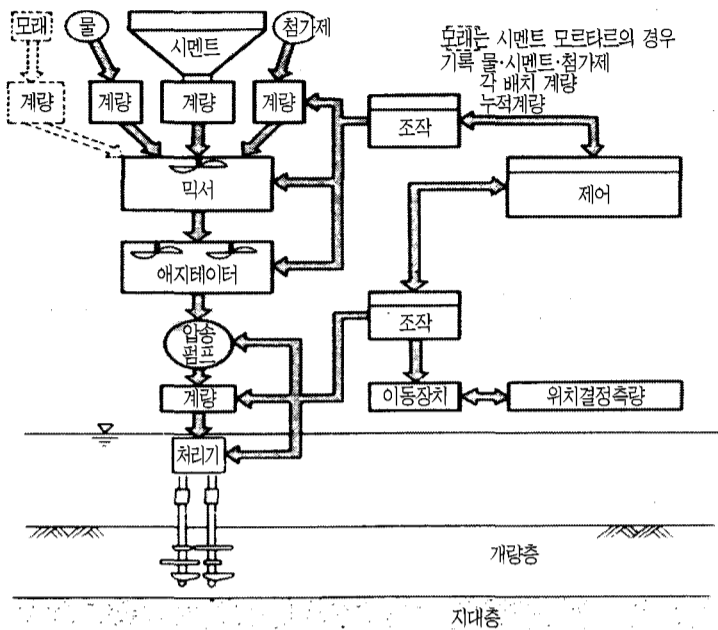


그림 4.5.6 시멘트슬러리 혼련순서

#### ① 위치결정측량

위치결정측량은 4.4 센드콕션과파일공에 기술한 방법중, 트랜시 2대에 의한 방법 또는 트랜시와 광파측거의에 의한 방법 및 자동위치결정 측량시스템에 의한 방법중 어느 하나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4.3 시공방법, (8)모래말뚝조성, ③위치결정측량 참조).

#### ② 시멘트 슬러리의 토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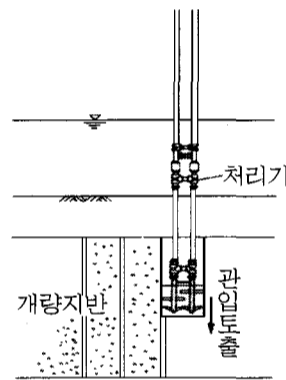


그림 4.5.7 관입시 토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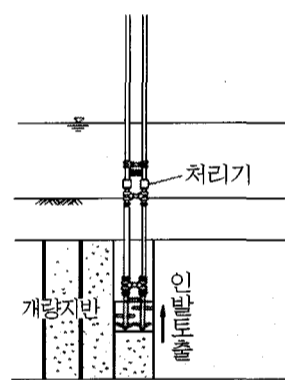


그림 4.5.8 인발시 토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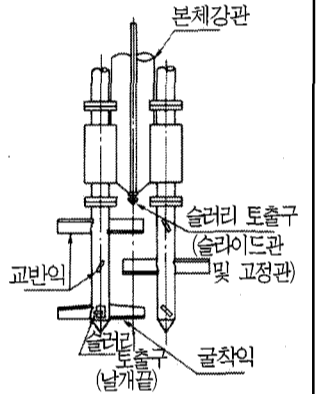


그림 4.5.9 처리기 선단부 구조

시멘트 슬러리의 토출방법에는 처리기의 관입시에 토출하는 방법과 인발시에 토출하는 방법이 있다.

관입시 토출방법은 처리기 관입시에 교반의 하부에서 시멘트 슬러리를 토출하여 굴착과 교반을 동시에 하고, 인발시에는 교반만을 하는 방법이다(그림 4.5.7 참조).

인출시 토출방법은 관입시는 굴착만이고, 인발시에 교반의 윗쪽에서 시멘트 슬러리를 토출하여 교반하면서 인발을 하는 방법이다(그림 4.5.8 참조).

이 두 방법을 비교하면, 관입시 토출방법은 접합성과 교반성의 점에서 유리하나, 관입성과 안전성에서 불리하다. 반대로 인발시 토출방법은 접합성과 교반성은 불리하나, 관입성과 안전성에서 유리하게 된다.

또 실적은 적으나 관입시, 인발시 모두 시멘트 슬러리를 토출하여 교반을 하는 방법도 있다. 처리기 선단부의 조성을 그림 4.5.9에 도시한다.

###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상항기간이 경과되면 계속적보증계약 해지 가능

#### 보증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 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불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 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채

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격,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보증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름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 보증인의 자격  
○ 보증계약도 일반계약능력 및 행위능력은 필요하다. 한편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증인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지명한 때 이외에는 그 요건을 갖춘 자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

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때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

○ 장래의 채무를 위한 보증이나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보증하는 근보증(根保證) 또는 계속적보증도 가능하다.

#### 보증의 내용

가. 일반보증  
○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넓어서는 안되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그러나 보증채무가 주채무 보다 적은 것은 무방하다.

○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나, 보증계약 성립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계약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확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확장되지 않는다.

나. 근보증 또는 계속적보증  
○ 계속적보증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 체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적보증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아니한다.

○ 또한 보증계약체결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증의 효력

가. 보증채무 청구  
○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등  
○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여 보지도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하여 온 때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대만히 하여, 그 후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곧 청구하였으면 변제받을 수 있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하는 때에는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 그러나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 이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증인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생활정보

생활정보